

미네르바 1차 글쓰기 과제

나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201702234 유동혁

|  |
| --- |
| 목 차  서로 간의 유대가 없어진 사회  사람들은 왜 혼족이 되었을까?  혼족은 과연 부정적일까?  유대감을 되살리려면?  참고 자료 |

서로 간의 유대가 없어진 사회

지식인들은 요즘 사회를 두고 유대감이 없어진 사회라고 하며, 그 원인들을 갑질, 몰염치, 양극화, 혼족 등으로 꼽는다. 이 원인들 중 이전에 없던, 새로 생긴 개념은 혼족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은 원래 존재했지만 인터넷의 발달때문에 더욱 이슈가 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혼족에 대해서 주로 다뤄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왜 혼족이 되었을까?

혼족이란, 밥, 술, 영화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럿이 같이하는 활동을 혼자 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혼자 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이들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굳이 얼굴을 보지않아도 항상 대화하고 연락할 수 있는 요즘 인터넷 환경과, 말그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 패턴 때문일 것이다. 또는 그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일수도 있다.

혼족은 과연 부정적일까?

필자는 고등학교때부터 혼밥을 자주 했었다. 그 때 당시 친구들이 없는 학원에 혼자 들어갔는데, 사교성이 떨어져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힘들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으러 다녔는데, SNS에서 봤던 ‘혼밥충 만화’ 같이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을 놀리는 자료들이 떠올라 웃기면서도 슬퍼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하고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시선을 들고 주변을 스윽 둘러본 순간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생각보다는 그 가게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은 당당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그 후론 나도 먹어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 다니며 맛있는 식사를 하고 다녔다.

혼족이 크게 알려지기 전 혼자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친구가 없나 보다 하며 히히덕대는 경우나 촬영하여 SNS에 올려 조롱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혼족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경우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이런 상황을 사업 아이디어로 삼고 1인식당, 1인 영화관 등 혼자가도 아무 부담이 없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 혼자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억지로 여럿이 하하는 것이 불편할 것이다. 혼족끼리 서로 바라보며 은연중에 생기는 유대감도 있을것이다. 따라서, 혼족이 유대감을 없앤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유대감을 되살리려면?

상술했듯, 유대감을 해치는 요인들로 손꼽아지는 갑질, 몰염치, 양극화 등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혼족만이 요즈음 대두되는 문제이다. 위에서 혼족은 유대감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 이것은 유대감을 해치는 요인이 맞다. 혼족을 유대감을 해치는 요인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그 요인이기 때문이다.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선이 유대감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갑질, 몰염치, 양극화 또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대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힘을 길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s://namu.wiki/w/%ED%98%BC%EB%B0%A5

https://namu.wiki/w/%ED%98%BC%EC%A1%B1